

광산구, 폐플라스틱 재활용 체험키트로 자원순환 교육

SK케미칼 후원으로 3천개 배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SK케미칼의 후원으로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체험키트를 활용해 초등학생 자원순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산구와 '투명페트병 재활용' 협약을 맺은 SK케미칼은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 체험키트 3천개(2천만 원 상당)를 후원했다.

자원순환 체험키트는 폐플라스틱 재생 원사로 만든 것으로,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물인 고래·수달·북극곰 세 가지 모양으로 제작됐다.

광산구 관내 전체 교육현장에 배포돼 미래세대 자원순환 교육 교보재로 쓰이고 있다.

섬유용 사인펜으로 키트에 색을 입히며 나만의 인형을 만드는 재미 있는 체험을 통해 환경의 가치와 자

원순환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어서 아이들은 물론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자원순환해설사들도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광산구는 앞서 자원순환 그림책도 제작해 유치원생·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아이들이 분리배출한 플라스틱이 재활용돼 인형으로 만들어진 것에 흥미를 보이며 자원순환 교육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

자원순환 교육이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투명페트병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SK케미칼은 광산구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활용해 헤어기 외장부품 등에 사용되는 리사이클 원료를 제조 공급하고 있다.

/서기만 기자

남구, '노후 주방시설·입식 테이블' 지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예방과 외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관내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노후 주방시설과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하는 2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며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5일까지 신청서를 서둘러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노후 주방시설 개선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소규모 음식점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후드와 덕트, 환풍기 교체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깨끗한 주방 위생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중식당 및 치킨을 취급하는 100㎡ 이하의 일반음식점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 업소도 참여 가능하며, 선정 업소에는 1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노후 주방시설 및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남구청 보건위생과(062-607-4410)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나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음식점 10~13곳 가량을 선정하며, 선정 업소에는 100만원 이내 보조금을 지원한다.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은 식당을 방문하는 외국인 및 관광객, 이동약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남구는 관내 일반 음식점 10~13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30~200㎡ 이내 영업장을 운영 중인 업소로, 소규모 업소부터 우선 지원한다. 안심식당 지정 업소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 업소도 참여 가능하며, 선정 업소에는 1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노후 주방시설 및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남구청 보건위생과(062-607-4410)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윤규진 기자

북구 시책(업무)일몰제 추진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예산·행정력이 낭비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폐지하는 '시책(업무)일몰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일몰제를 통해 비효율을 초래하고 유사·중복된 업무는 폐지 또는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주요 일몰 대상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업무 ▲예산·행정력 투입 대비 성과가 낮은 업무 ▲유사·중복 업무 ▲기능소멸 및 추진 효과가 없는 업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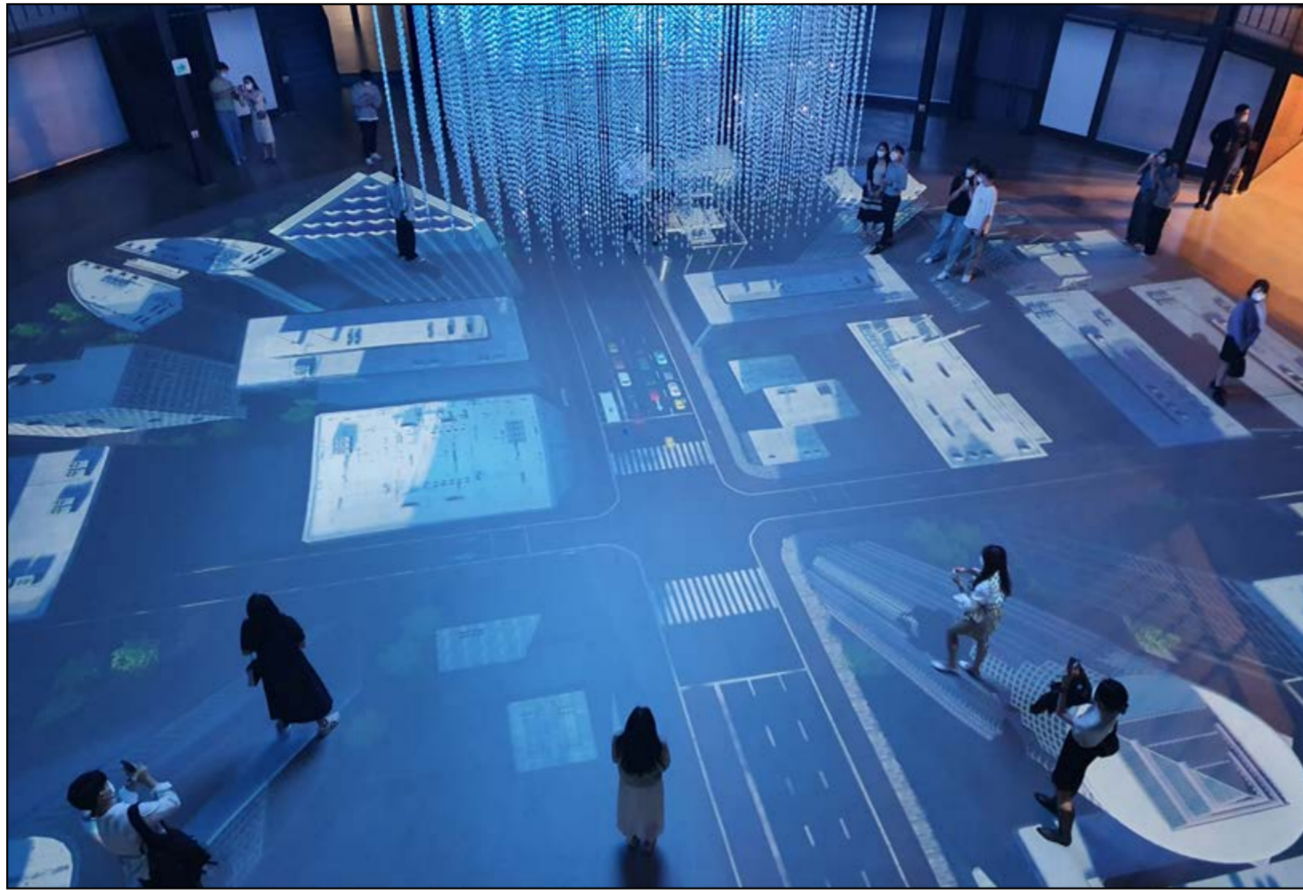
이달 말까지 구정업무 전반을 진단해 발굴된 일몰 대상은 부서 자체 검토 또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절감된 예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신규 현안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격년으로 실시했던 일몰제를 올해부터 매년 상시 운영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불필요한 일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 또한 구정 운영의 원동력이 된다"며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구민에게 신뢰와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일몰제 추진으로 41건 폐지, 14건 개선을 통해 2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다.

/서기만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동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당일 및 1박 2일 투어로 기획한 '달빛시티투어'와 '광역시티투어'가 이용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구청 제공

동구, 달빛·광역 시티투어 '큰 호응'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동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당일 및 1박 2일 투어로 기획한 '달빛시티투어'와 '광역시티투어'가 이용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달빛시티투어'는 지난해 9월 광주 동구와 대구관광재단이 양 도시 간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2월까지 매

달 첫 번째 토요일마다 예술, 힐링, 역사, 젊음, 충장축제 등 5개 테마로 운영 중인 투어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달빛시티투어는 지난 4월 재개후 여전히 인기몰이 중이다. 테마별 코스 가운데 무등산 증심사와 동명동 카페의 거리 트립커피 체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동구 힐링코스'에 대한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발맞춰 달빛시티투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출발, 광주 동구 광역시티투어'도 인기다. '야간관광'을 테마로 한 동구 광역시티투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매회 투어 상품 판매량이 증가하는 성황을 이루고 있다.

/서기만 기자

서구,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추진

만19세~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광주 서구(청장 김이강)가 오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부모와 따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반드시 임대건물 소재지에 전입돼야 한다.

지급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700만원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

득은 100% 이하, 자산은 3억 8천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가능하며, 월세 지원은 심사후 올해 11월부터 시작된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 청년활력팀(062-350-4797)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가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